

## 미국에서의 한국어 보급운동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명예교수 이 광 규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어 학습이 세계적인 현상으로 되어가고 있다. 마치 한류가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 등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불고, 이것이 불란서를 통하여 유럽으로 전파되고 미국으로 상륙한 것과 유사한 시기에 한국어 학습의 열풍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55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632개 대학에서 한국어 강좌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 취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어 시험을 치르는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도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미국에서는 91개 대학에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있고 그중 63%의 학교는 최근 6~7년 사이에 한국어 강좌를 개설한 학교들이다. 말하자면 1990년 후반부터 한국학 열풍이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도 크게 일었던 것이다.

미국의 경우 새로이 한국어 강좌를 개설한 학교는 시간 강사 2명 내지 3명을 임시로 고용하여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고 학생들의 반응 추세를 관망하고 있다. 한국어 강좌가 인기가 있어 학생들이 많이 수강하면 선생을 늘리고 한국어 강좌를 한국학과로 승격할 것이고 인기가 없어 학생수가 감소하면 폐지하여 버리려는 것이다. 대학들이 서둘러 한국어를 개설한 이후 기대만치 학생수가 늘지 않고 현재는 소강상태에 있으나 한국어 수강하는 학생이 크게 늘지도 않고 크기 줄지도 않아 근년에는 학교들이 더 관망하는 추세에 있다.

미국의 경우 대학보다 시급한 곳이 중·고등학교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1996년 SATII에 아홉 번째로 한국어가 채택되어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한국어로 외국어 시험을 칠 수 있어 한국계 학생들이 SATII에서 한국어 시험을 치고 있다. 이것의 조건은 응시자가 2,000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한국어 응시자는 약 3,000명을 상회하여 별 문제는 없다. 다만 이들 한국어 응시자는 한국계 학생들이고 아직 미국 학생들이 응시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중국어와 일본어의 경우 중국계나 일본계 학생이 아니라 미국 학생들이 응시하며 이들이 2,000명이 넘는 것이니 이것에 비하면 한국어의 경우 한국계 학생이 당분간 2,000명을 채워주어야 하는 형편이다.

한국어 교육에서 문제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학교와 SATII와의 연결 문제이다. 한국 교민들은 도처에 한국학교를 설립하여 한국 후세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는 1,001개의 한국학교가 있다. 이들은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주말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주

말학교이다. 이들 한국학교의 90% 이상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라 시설도 좋고 안정된 교육을 실시하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안정기에 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학교에 취학하는 학생은 취학 연령에 있는 한국계 학생의 15%밖에 되지 않아 85%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한국학교를 기피하는 것이 문제의 하나이다.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한국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초등학교 학생들이고 학생이 중학교에 진학하면 한국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이다. 한국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유는 중학교만 가도 토요일 등 주말에 운동 등 학교에서 하는 행사가 많아 주말학교를 갈 시간이 없는 것이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중학교를 가면 어머니 영향권에서 벗어나려 한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중학교를 가면 한국학교에 가지 않는다.

그 후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 한국어 학습의 공백기를 가졌다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SATII의 한국어 시험을 치기 위하여 특별과외를 하거나 학원을 다니며 한국어 보충수업을 듣고 SATII 한국어 시험을 치른다. 문제는 중·고등학교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이 많지 않은 것이다. 특히 2004년 Bush 대통령이 제2기 임기를 맞이하면서 미국의 약점의 하나가 외국어 실력이 약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부터 외국어를 배우라 하고 6개 나라 말을 추천하였으며 이에 한국어, 중국어, 그리고 일본어가 포함된 것이다. 이것을 Bush Grant 2004라 한다. 이러한 장려가 없어도 중국은 미국에서 중국어를 가르치는데 열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좋은 기회라 하여 중국어 보급에 적극적이다. 일본 또한 이것을 기회로 정부가 나서 미국 중·고등학교에 일본어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것에 비하면 한국은 정부도 한국어 보급에 적극적이지 않고 교민들도 한국어 보급에 극히 소극적이다.

Bush Grant 2004 이후에 미국 중·고등학교에서 외국어 선택, 특히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마치 동양 3국이 총 없는 문화전쟁을 하는 것과 같았다.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보면 약 4만 개의 중·고등학교 가운데 중국어를 배우는 학교가 1,000여 개, 일본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약 700개, 그리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65개였다. 말하자면 경쟁이 되지 않을 정도로 한국어가 열세에 있다. 현재 미국 중·고등학교에서 앞으로 희망하는 언어를 문의하였던 바 중국어를 가르치겠다는 학교가 80%, 일본어를 수업하겠다는 학교가 20%이며 한국어를 하겠다는 학교는 거의 없다.

미국의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수로 말하자면 한국이 유리하다. 미국 중·고등학교에서 중국어나 일본어를 선택한 학교에 중국계 학생이나 일본계 학생이 많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많은 것이 장차 그 나라 말을 선택할 때 유리한 것은 틀림없다. 이러한 조건을 고려한다면 한국계 학생이 중국이나 일본 학생보다 많고, 특히 한국계 학생들은 좋은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많으며 교민 자녀 이외에도 국제 결혼한 여자가 20만 명이 되며 이들의 자녀를 합하고, 입양인 18만 명과 그들의 자녀를 합한다면 한국계가 중국이나 일본이 비교할 수 없으리만치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한국이 보다 유리하다.

문제는 한국계 부모들이 그리고 한국 교민들이 어느 정도 열의를 갖고 한국어 보급에 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한국인 학부모들은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 한국이 어려웠을 때 이민한 교민들은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빨리 잊으라 하였고 한국 학생이 없는 학교에 자녀를 보냈기 때문에 한국어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학부모들은 미국에까지 와서 왜 한국어를 배우느냐고 한국어 수업을 거부한다.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뉴저지의 한국 학생이 많이 다니는 어느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다. 교장이 말하기를 우리 학교에 한국 학생이 많으니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고 하자 한국 학부모들이 말하기를 미국에까지 와서 왜 한국어를 가르치느냐, 오히려 다른 외국어를 배우게 하라 하여 교장하고 타협한 것이 이태리어를 택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중국인과 극히 대조적인 현상이다. 중국 정부도 그러하지만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은 기회만 있으면 중국어를 보급하려 하고, 기회가 없어도 기회를 만들어 중국어 보급을 서두르고 있다. 일본은 이미 1950년대부터 일본어 보급에 힘을 썼으며 현재도 정부와 교민들이 하나가 되어 일본어 보급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한국어를 위시하여 미국 중·고등학교에서 외국어를 가르치는데 4가지 유형이 있었다. 하나는 Heritage Education이라 하여 집에서 부모가 한국어를 사용하나 학생이 한국어를 못하는 경우 학생에게 모국어를 초보부터 교육시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유형은 Native Language Arts 약하여 NLA라는 것이니 이것은 이민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영어보다 한국어를 잘 하는 학생들이 자기의 모국어를 잊지 말고 계속해서 잘 유지하라는 의미의 한국어 교육으로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은 생활 언어로서의 ESL 과정을 이수하는 이외에 수준 높은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다. 세 번째 유형은 Dual Language Education이라 하여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대등하게 수업하는 것이다. 두 나라 말을 어려서부터 잘 배우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두 가지 언어를 다 잘 할 수 있다는 연구를 토대로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Foreign Language Program이라 하여 한국 학생 이외의 학생만이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것이다. 이 4가지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하나 또는 둘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LA에는 세 번째 유형인 이중 언어 교육이 많았다. 그러나 중국어나 일본어는 네 번째 유형이 많은 것이다.

미국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가 중국어나 일본어보다 열세에 있는 것이 당연한지 모르겠다. 미국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세계사 교재의 분량이 300페이지에 달하고, 거기에 중국에 관한 것이 10페이지 그리고 일본에 관한 것이 2페이지가 있으며 한국에 관한 것은 한 페이지 속에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언급하면서 한국에 관한 것은 1950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 미군이 가서 도와주었다는 두 줄밖에 없다. 미국에서 아시아 여행을 하려고 여행사에 주문하면 아시아 여행은 동경과 북경을 들르는 것이다. 한 곳을 더 추가하여 달라고 하면 상해를 추기하지 서울을 추가하지 않는다. 미국의 일반적인 사람이 이러하기에 중·고등학교에서 그나마 65개교에서 한국어 강좌가 있다는 것이 다행인지 모른다.

그러나 미국 연방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어를 강조하고 있다.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미국은 1996년 한국어를 SATII에 첨가한 이래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어를 중국어, 일본어와 같은 수준에서 미국인과 미국 학생들이 배워야 할 언어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2000년에 발표한 National Security Education Program인 Flagship Scholarship에서 선택한 9개 외국어에 한국어가 있고, 2004년에 발표한 Bush Grant 2004인 Foreign Language Assistant Program이 추천한 6개 외국어에 한국어가 포함돼 있으며, 2008년에 발표한 National Security Language Initiative인 Critical Language Scholarship 10개 외국어에 한국어가 편입되어 있다. 말하자면 미국 연방정부는 한국어를 국제어로 인정하는 동시에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등 동양 3개 국어를 대등한 수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Flagship Scholarship은 미국 국무성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매년 10명 내외의 한국계 학생을 모집하여 고려대학에 보내 1년간 한국어를 공부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에서 한국어를 왜 배우느냐 하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동포들이다. 한국계 학부모들은 한국어가 국제어가 되고 미국 정부에서 국민들이 꼭 배워야 하는 언어의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미국에서 한국어는 이제 한국 교민들만이 배우는 한국어가 아니라 미국이 인정한 국제어가 된 것이다. 미국이 1996년 한국어를 SATII에 추가하자 바로 이어 호주와 일본이 대학 순응고사에 한국어를 첨가하였다. 특히 한국어를 말살하려던 일본은 식민지 시대 한국어를 없애려 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전후 계속하여 말하기를 이 지구상에 없애야 할 언어가 있다면 그것은 한국어라고 선전하여 자기들의 한국어 말살 정책을 정당화하여 온 나라이다. 그런 나라가 한국어를 대학 순응고사에 넣었다는 것은 미국 때문이다. 영국에서도 한국어를 대학 순응고사에 넣었다.

이러한 현상을 재미 동포들에게 이렇게 강조하였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재미 동포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한국 후손으로 한국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후손들은 미국인들에게 국제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하여 한국어 교사로서의 의무감을 갖고 배워야 한다고 말하였다. 한국에서도 이제부터는 외국에 한국어를 보급하는 것은 한국어가 국제어가 되었기 때문이며 문교정책에서나 모든 대외정책에서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미국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보급하는데 “참고가 된 사항이 두 가지 유형이 있었다.” 뉴욕의 유명한 고등학교인 스티브 세인트 고등학교의 예이다. 이곳에서는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 3개 동양어를 모두 수업하고 있었다. 일본어의 경우 일본 학생이 한명도 없으나 일본 정부의 적극적으로 지원으로 학교장의 재량으로 일본어를 개설하였고 학생들이 많이 듣고 있었다. 중국어의 경우 학교에서는 Dual Language Course로 영어 70과 중국어 30으로 시작하였다. 중국이 30이 되자 중국 교민들이 방과 후의 시간은 전부 중국인에게 맡겨 달라 하여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였다. 중국 교민들이 힘을 합하여 과외 시간은 전부 중국어 반으로 편성하고 중국어 선생

을 채용하여 열심히 중국어를 배우게 하였다. 그 결과 영어 70에 중국어가 60이 된 것이다. 이에 학교에서는 Dual Language의 의도대로 중국어와 영어를 50대 50으로 하기로 하여 중국어가 정규 과목이 된 것이다. 이 학교에서도 한국어가 불리한 것은 한국어는 선택과목이고 중국어와 일본어는 의무과목이다. 의무과목은 졸업할 때까지 꼭 들어야 하는 과목이고 선택과목은 수강하지 않아도 졸업에 지장이 없다. 따라서 200여 명의 한국계 학생이 한국어 선택을 꺼리고 중국어나 일본어를 수강하는 학생이 많다.

이러한 사정을 교민들 스스로 알고 앞으로 중·고등학교에 보다 적극적인 한국어 추진을 위하여 뉴욕에 “한국어 정규과목 채택 추진회”를 조직하였다. 교민 사회의 유지 3분을 공동대표로 하고 미국 중·고등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하며 한국교육재단의 이사 등을 중심으로 조직한 추진회는 우선 학교 학부모들을 계몽하는 사업, 학생들에게 한국어 수업이 왜 필요한가를 계몽하기 위한 강연회, 한국어 중·고등학교 교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뉴욕을 모델로 미국의 다른 도시에서도 이것을 따르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다행히 한국계 교육위원이 상당수가 되고 젊은 2세 젊은이들 사이에 한국어 교사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현상이다.

미국에서의 한국어 보급운동은 앞으로 10년이 가름길이 될 것이다. 말하자면 미국에서의 한국, 중국, 일본의 총 없는 문화전쟁은 10년이 고비가 된다는 말이다. 10년 이내에 미국 중·고등학교에 한국어 보급을 서둘러야 하며 중국어나 일본어가 이미 채택된 학교에 한국어를 보급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 동포들이 전력을 다하여 미국 중·고등학교에 한국어 보급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여야 하고 한국에서도 적극적인 후원이 있어야 한다. 한국에서는 교육부는 말할 것 없이 학계, 교육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미국은 물론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도 한국어 보급에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한 제언: 번역의 문제를 중심으로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명예교수 박 환 덕

### 들어가는 말

세계문학사는 결코 세계문학의 역사만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글로벌한 시대에